



오늘의 말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 쓰기를 배우게 하라 _ 디도서 3:14

오늘의 주요기사

- | | | |
|-----------------|----------------|-----------|
| 2-3 유소년순 겨울성경학교 | 8 세움학당 / 양육클래스 | 10 상례위원회 |
| 4-5 청소년순 겨울수련회 | 9 교사일기 / 산상수훈 | 11 십자말풀이 |
| 6-7 청년부 겨울수련회 | 10 교회사용설명서 | 12 봉사부 모집 |



내가 느끼는 일상만큼 아이들도 느끼는 일상

아직은 바람이 쌀쌀한 3월. 오랜만에 열린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어떻게 생각하길 원하시나요? 배우는 과목들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창조섭리와 인간사회의 약속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른들은 회사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계를 위해서 억지로 다니는 곳인가요? 가정에서의 일상은 어떠세요? 끊이지 않는 집안일들에 지치고 지겹기만 하신가요? 우리는 일상이 힘들고 지치고 지겹다고 하면서 아이들에게는 즐겁고 행복한 일상을 보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의 일상이 매 순간순간이 은혜임을 기억하며 내게 주어진 자리를 소명의 자리로 여기고 즐거움으로 헌신하는 일상이어야 내 주위 사람들도 일상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보내는 일상이 바로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일상입니다. 아이들의 가벼운 발걸음처럼 일상의 신앙도 새로이 출발하는 2023년의 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글함글

겨울지역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유소년숲

지난 2월 18일(토)~19일(주일)까지는 초등부에서, 25일(토)~26일(주일)까지 유년부와 소년부에서 <2023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가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유소년숲(행 1:8)”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3년만에 현장에서 열리는 겨울성경학교로 그 어느 때보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유소년숲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유소년숲’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는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가정’이라는 교회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학령기 아동들에 맞춰 기획되었습니다. 선교란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교를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부모와 가정이 함께 연계하며 은혜의 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에서 이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했습니다.

부모명품특강 -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

코로나19는 언택트 시대를 더욱 빨리 앞당겼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이 아이들 삶에 더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야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무분별한 스마트폰 사용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 나아가 신앙에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 분야 한국 최고의 전문가 권장희 소장(놀이미디어교육센터)를 모시고 ‘스마트폰으로부터 아이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부모명품특강을 마련했습니다. 보는 것이 영성인 이 시대에 유소년숲 부모님과 조부모님들, 여러 교구에서 의 많은 관심 가운데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유소년숲

3년만에 교회 현장에서 열린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에는 하나님 말씀과 은혜가 넘쳤습니다.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지는 말씀 잔치에 유소년숲 위원장 장로님, 교육지원부, 각 부 부장님, 지도권사님, 그리고 기도와 기쁨으로 섬겨주신 모든 선생님들, 유소년숲 부모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상훈 목사 / 유소년숲



겨울사역
유소년숲 겨울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수고의 조각들이 모인 복된 시간

이번 겨울성경학교는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많은 아이들이 참석했고 재미있고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준비기간 동안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께서는 매일 기도하며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하였고, 찬양팀 또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하며 겨울성경학교를 기다려왔습니다. 당일 아침부터 아이들 맞이가 시작되었고, 초등1, 2부 모두 함께 기쁘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겨울성경학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점심도 맛있게 먹고, 말씀 공부 때는 열정적으로 성경탐험을 외치며 게임으로 예수님을 알아가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간식을 먹은 후 전도사님과 재미있는 가라사대 게임부터 포환 던지기 게임까지 너무도 적극적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이런 시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1일차 성경학교를 마무리하고 다음날까지 이어지는 예배와 말씀으로 2일차도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전날부터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지도권사님 두 분과 도와주신 선생님들, 찬양팀 연습과 지도에 열정을 다하신 찬양팀 선생님들, 게임에 온몸을 불태우신 전도사님,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내주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을 항상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피시는 담임 선생님들, 말씀을 재미있게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최유림 교사 / 초등2부

“그날은 나 겨울성경학교 가야 해” 친구와 이야기하던 재승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초등부의 겨울성경학교가 성전 안에서 열렸습니다. 어느덧 4학년이 되는 재승이가 초등학교 입학 후 처음 맞이하는 대면 성경학교이기에 가족 모두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유소년숲’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초등부 겨울성경학교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차게 달릴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온 어린이들로 가득했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던 초등부 어린이들의 행복 가득한 두 눈을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절로 납니다. 어린 시절의 성경학교 감흥이 그리웠고 선생님들 노고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함께 한 겨울성경학교였는데, 되려 제가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모든 어린이가 왼손은 가슴에 얹고 오른손은 하늘 향해 높이 들고 “주의 길을 나 따라갑니다. 주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라고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공동체 게임을 할 때 한 팀 된 친구들이 협동하고 응원하며,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감사함에 두 손이 절로 모아졌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의 모든 순간은 은혜였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 학부모, 초등부 어린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의 조각들이 모여 이 복된 시간이 마련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이번 겨울성경학교에서 경험한 복음이 유소년숲 어린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세우는 역사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지원 집사 / 5교구, 초등1부 김재승 어머니



겨울사역
청소년숲 겨울수련회

오늘 살고 來일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청소년숲은 코로나로 함께 모일 수 없었던 시기, 흩어진 교회인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에서, 매일의 일상 속에서, '10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 가야 할지를 고민하고 찾아가고 경험해보는 5번의 수련회를 다음과 같은 주제로 진행하였다.

- 시즌 1.** 창문 넘어 함께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Church beyond church)
시즌 2. 빈틈 채워 함께 걷는 10대 그리스도인 (Walk in Love)
시즌 3. 잠깐 멈춰 함께 웃는 10대 그리스도인 (How to Live)
시즌 4. 너나 함께 성장하는 10대 그리스도인 (How to Grow)
시즌 5. 함글함글 회복하는 10대 그리스도인 (Day Day Missio Dei)

그리고 지난 2/10(금)~2/12(주일)까지 '오늘 살고 來일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Well-Being Well-Dying)'이란 주제로 진행된 청소년숲 겨울수련회는, 코로나 시기에 진행된 온라인수련회를 마무리함과 동시에, 오프라인 수련회를 새롭게 여는 연결고리로서의 의미가 청소년숲 가족 모두에게 크고 소중했다.



요한복음 11장 25-26절을 주제 말씀으로, 올(All)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모든 생명 안에 존재하는 희노애락의 인생(개인의 고유한 삶과 더불어 함께하는 삶)속에서, 삶과 죽음과 영생의 의미를 생각해 보고, 영생의 빛 아래에서 '오늘'을 사는 10대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이며,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찾아가고 경험해보는 시간이었다.

수련회는 2박3일 진행되었지만, 2/5(주일), 12(주일), 19일(주일) 3주간의 청소년숲 연합예배를 통해, 수련회의 주제를 미리 만나고, 주제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에 흠뻑 젖어두고, 수련회의 추억을 마음과 가슴에 새기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2023 청소년숲 세라인 수련회

	금요일(2/10)	토요일(2/11)	주일(2/12)
제목	살금살금 라이브	살맛나는 토요일	종교연합 예배
시간	오후 8-9시	오전 9:30-오후 6:00	오전 8:55-오전 10:30
방법	유튜브 라이브 방송	오프라인(대면) 활동	오프라인 & 온라인병행

오늘 살고 來일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살금살금 라이브

금요일, <살금살금 라이브>라는 이름으로 온라인을 통해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실시간 스트리밍을 통한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소통하였으며, 오후 8시부터 한 시간 가량 다양한 퀴즈와 레크리에이션, 추첨 시간이 이어졌다. 수련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수련회 주제, 토요일과 주일 오프라인 일정 안내 등)을 간단한 퀴즈로 게임하듯 알아가기도 했으며, 유튜브 채팅이나 문자, 전화 등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물리적으로 서로 떨어져 있지만 실시간 방송을 통해 현장감과 유대감을 느낄 수 있었으며,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진행될 내일의 수련회를 더욱 기대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2023 청소년숲 겨울수련회
오프라인 프로그램

살-맛나는 토요일!

일시 2023년 2월 11일 토요일 오전9:30- 오후6:00
 장소 다목적관 5층 (식사는 김마리아회관 식당에서)

시간	내용	장소
09:30-10:00	등록 및 Welcome!	다목적관 5층
10:00-10:30	살맛나는 오전예배1	다목적관 5층
10:30-12:30	중등부 / 고등부 팀빌딩	각 장소
12:30-14:00	맛난 점심식사!	김마리아 회관 지하1층 식당
14:00-16:00	명랑운동회: 내일을 찾아서	다목적관 5층
16:00-18:00	살맛나는 오후예배2 (Feat. 다비드)	다목적관 5층
18:00-	간식들과 집으로 ~	BYE BYE

2023 주님의교회 청소년숲 겨울수련회 : 오늘 살고 來일 사는 10대 그리스도인!

살맛나는 토요일

토요일은 청소년숲 가족 모두가 기다렸던 시간, 대면으로 만나 수련회는 진행되는 날이었다. 다목적관 5층에서 진행된 토요일 대면수련회는 학생 148명, 교사 58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다.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가득했고, 서로의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지 않았다. 살맛나는 오전예배1(설교 : 백양선 전도사)로 시작하여, 중등부/고등부 부서별로 진행된 팀빌딩 시간, 그리고 선생님들과 권사님, 집사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점심식사, 이후 이어진 명랑운동회(내일을 찾아서), 그리고 살맛나는 오후예배2(설교 : 김계원 전도사)로 이어진 시간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와 언니, 오빠, 형, 누나와 하나가 되어 수련회 주제에 담긴 의미와 말씀에 흠뻑 빠져 들었다. 다비드와 MNM(초청공연팀)과 함께 뛰며 찬양했던 그 시간은, 잊을 수 없는 청소년숲 공동체의 추억이 되었다. 함께하는 우리,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깨닫고, 진실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시간이었다.



청소년숲 연합예배

2/5(주일)에는 '우리들의 희노애락'(설교 : 임경순 목사), 12(주일)에는 '오늘 살고 내일 사는 10대 그리스도인'(설교 : 오성민 전도사), 19(주일)에는 '주 안에 우린 하나'(설교 : 김계원 전도사)의 주제로 함께 모여 예배하며, 5(주일)에는 수련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시간으로, 12(주일)은 수련회 마지막 날로, 시상식을 준비하여 서로를 격려하고, 19(주일)은 수련회의 의미를 다시 기억하고 새롭게 깨닫고 경험한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임경순 목사 / 청소년숲

겨울사역
청소년수련 겨울수련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했던 귀한 시간

우리 팀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을 배웠고, 비록 우리가 이기지는 못했지만 함께 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조엘라 / 중등부 2학년

교회 첫 수련회였는데, 제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고 좋은 선배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딜가나 늘 잘 보고 챙겨주시던 2조 선생님도 정말 좋았습니다! 다음 수련회도 가고 싶습니다! 오후 예배를 진행하였을 때 졸아서 죄송합니다..ㅋㅋ.. 아무튼 공연도 콘서트 온 듯이 신났고, 여러 모로 재밌었네요! 객윤슬 / 중등부 1학년

이번 겨울수련회는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대면으로 만나서 하는 활동이 제일 좋았고 그중에서도 저는 희노애락 팀빌딩 시간이 가장 즐거웠습니다. 저번에는 화면으로만 보았지만 이번에는 직접 볼 수 있었던 다비드의 공연도 좋았고 모두가 참여해 즐길 수 있는 명랑운동회도 재미있었습니다. 수련회에서 전도사님 말씀도 듣고 다양한 활동들을 즐기니 3일을 정말 알차게 보낸 것 같습니다. 은혜 깊은 시간이었고 다음 수련회도 꼭 신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호경 / 중등부 2학년

프로그램마다 너무 만족스러웠고 즐거웠고 친구들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수련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이 되기로 굳게 결심하는 은혜를 받은 거 같아요!! 김도현 / 중등부 3학년

오랜만에 오프라인 수련회에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특히 오전의 부스 활동과 운동회는 최고였습니다.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수 / 고등부 1학년

기쁘고 즐거운 것만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슬퍼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 감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의 온라인 수련회도 정말 좋았었지만 대면 수련회에 대한 기대와 바람이 있었기에 조금 아쉬웠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그동안 바라왔던 대면 수련회를 하게 되어 너무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련회를 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뛰고 춤추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는 뜨거운 수련회를 준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설은우 / 고등부 1학년

찬양이랑 예배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지고 친구들과도 함께해서 더욱 더 재미있었던 거 같아요!! 여름수련회 너무 기대돼요. 이번 수련회 기획해주시고 도와주신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노하은 / 고등부 2학년

토요일 참여를 하지 못했지만, 수련회 참여를 하면서는 항상 느끼는 것은 잠시 쉬어가고, 교훈을 얻어가는 것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과 중에서도 하나님과 교회를 생각하면서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자는 다짐이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항상 좋은 수련회 준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정수 / 고등부 3학년



겨울사역
청년부 겨울수련회

오랜 기다림 끝에 총만함 가득, 3년 만의 청년부 대면수련회

Flow Over 예·채·능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

지난 19년 8월 여름수련회를 마지막으로 3년이 넘는 기간 청년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련회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때에는 항상 당연하게 반기마다 가던 수련회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지 못하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0년 겨울 수련회가 준비 중에 었어지고, 그 다음 수련회들이 대면으로 기획되지 못했을 때 저희 청년들 가운데 얼마나 아쉬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기도와 예배에 집중하고, 공동체가 하나 되어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모두에게 간절했음은 기대보다 많았던 118명의 이번 수련회 신청자 수가 말해주는 듯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고대하던 대면수련회가 드디어 그 길고 긴 3년 반의 터널을 지나 지난 2월 17일~19일, 2박 3일간 열리게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고삼호수를 끼고 있는 고삼재연수원과 우리 주님의교회 예배당에서 'Flow over 예·채·능(예수로 채워지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우리의 신앙과 공동체성에 꼭 필요했던 퍼즐이 총만함하게 끼워맞춰지는 듯한 시간이었습니다.

프로그램 소개

청년부 수련회에서는 두 번의 저녁 집회와 한 번의 주일 집회 외에도 여러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 만나는 지체들과 한 시간 동안 나눔을 하는 조모임 시간이 총 세 번, 함께 조 단위로 레크리에이션 게임을 수행하는 두 시간 반 동안의 공동체 프로그램 시간이 두 번, 오십 분 동안 신앙서적을 읽거나 큐티를 하고 10분간 주변 지체와 나누는 개인 신앙 시간이 총 두 번, 그리고 한 시간의 아침 운동 프로그램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알차게 여러 지체의 손길로 준비되고 예수님께서 완성해주신 각 프로그램의 상세한 내용들을 만나 보시죠!

집회

이번 수련회에서는 첫 이틀 동안 한남대학교 기독교학과 최영근 교수님께서 강사로 설교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요나라는 인물을 통해 작금의 청년세대 복음화율과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지 고민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 중간중간 교수님께서 들려주시는 교회사 이야기 기도 흥미로웠습니다. Q&A 시간에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계가 많은 우리가 사랑하기 어려운 상대를 사랑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교회가 삶으로 전도할 수 있는 지 청년들이 질문했고, 교수님께서 답변해주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일 집회에서는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정구민 목사님께서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예수로만 자족하며 채워지는 삶에 대해 설교말씀 나눠 주셨습니다. 설교말씀 전에는 모두가 함께 위십을 추며 방방 뛰었던 뜨거운 4~50분의 찬양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열기와 함께함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한겨울에 창을 열어놓고 반팔을 입고도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설교 후에는 한 시간이 넘는 기도회가 이어져 함께 중보하고 삶을 고백하는 귀한 나눔과 채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모임 (환승현애)

'환승현애'라는 부제로 준비된 이번 조모임은 인기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인 '환승연애'에서 이름을 따와 현재 사랑하고 있는 것에서 환승해서 예수님께 돌아오자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청년부에서 직접 제작한 소책

자에는 현재 나를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적을 수 있는 뇌 지도와 질문들이 마련되어 있어 함께 관심 있는 분야와 걱정거리, 좋아하는 것 등 현재 조원들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과거에 공허했던 경험, 예수님으로 채워졌던 신앙의 경험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일상에서 내가 주변과 이웃에 채워주고 싶은 영역을 나누고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수련회 주제인 'Flow over'(홀러넘침) 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고민을 함께했습니다.



공동체 프로그램 (주락실)

레크리에이션에 진심인 우리 청년부답게, 항상 수련회 때마다 공동체 프로그램을 전담으로 하는 태스크포스가 구성됩니다. 공동체 프로그램은 오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 기획을 위해 모인 12명의 스태프 청년들이 극비리에 몇 주간 준비해온 프로그램들로 단체 게임을 하며 조별로 순위를 다투는 시간입니다. 1,2,3등을 한 조에게는 조원들끼리 커피타임을 가질 수 있는 스타벅스 기프트카드가 차등 지급됩니다. 연령대별로 편성이 되는 기존의 셀모임과는 달리 수련회 조는 청년부 내 전 연령대가 섞이게 되는데, 섞이지 않으면 공동체 프로그램 게임에서 연령대별로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의 편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체력이나 지성을



요하는 다양한 미션을 함께 수행하는 공동체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청년부가 서로 처음 만나고 함께 하나 되어 친밀해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개인신앙시간 (주님과 함께)

저녁 식사 전, 고요히 1:1로 예수님과 만나고 묵상하는 '개인신앙시간'을 가졌습니다. 50분간 함께 강당에 모여 각자 편안한 자세로 성경말씀을 묵상하거나, 큐티를 하거나, 신앙 서적을 읽고 그 다음 10분간 주변 사람들과 받은 은혜와 감정을 나누는 풍성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년부실과 교역자실에 소장된 신앙서적을 가져가 청년들이 대여해서 읽을 수 있게도 하였는데, 예상보다 도서 대여도 많았습니다. 수련회 소책자에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큐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신앙서적은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교역자 가이드를 실어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했거나 자율적인 개인신앙시간에 무엇을 할지 모르는 지체들이 참고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수련회 이후 일상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지 한 층 더 알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운동 (피지컬 : PCL)

예체능이라는 주제 동음이의어에 걸맞게 아침 운동 프로그램이 진행되었습니다. 운동을 통해 개운한 상태로 건강한 신앙을 위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실제 현업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지체와 물리치료를 전공한 지체가 맨몸근력운동과 필라테스 프로그램을 30분씩 준비하여 진행해주었습니다. 짧게나마 자신의 체력적 한계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고강도 운동과 개운한 스트레칭으로 인해 다음 날 근육통이 온 지체들이 많았습니다. 함께 조끼리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 온 힘을 다해 운동하는 시간을 통해 근성장과 건강도 이루고 정서적으로도 채움을 받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인범, 양수민 청년 / 청년부 임원단 23기

겨울사역
청년부 겨울수련회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하지 못했던 대면 청년부 수련회가 열린다는 소식에 기대되었습니다. 함께 뛰며 뜨겁게 찬양하고 서로를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하는 순간들을 조장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처음 해보는 조장이라 여러모로 걱정이 많았기에 수련회 사전 기도회와 개인적인 기도 시간에 조원분들이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으로 채움 받기를, 제가 그 과정에 쓰임 받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수련회 첫째 날,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레크리에이션과 조모임을 통해 서로 친해지게 되었고 저녁 집회의 찬양과 말씀도 은혜로웠습니다. 수련회의 피크인 두 번째 날에는 여러 활동과 두 번째 조모임을 통해 서로의 채움이 필요한 부분들과 기도제목을 나눴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열기의 찬양과 대학 강의를 방불케 하는...교수님의 설교 이후에는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조원 한 명씩 가운데로 나와 기도제목을 들고 모두 그 조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해주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상처를 싸매시고 불확실한 미래와 위기 상황에 대한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꾸시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구를 귀담아들으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었고 서로의 마음이 하나 되어 기도하는 시간이 아직 잊히지 않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개인적으로는 숨어있던 저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고 조장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풍성하게 채워지는 청년부 겨울수련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교역자분들, 임원단, 사역팀, 스태프, 그리고 조장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 수련회를 주관하시고 모든 순간과 상황 속에서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현준 / 청년부 31기

2023년 2월 17일~19일, "FLOW OVER 예·채·능"이라는 주제로 고삼재 연수원에서 진행된 청년부 겨울수련회가 무사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이루어지는 수련회이자 스무 살이 되어 가게 된 저의 첫 청년부 수련회였기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했고, 그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들에 대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 날 저녁 집회시간이 인상 깊었습니다. 큰 목소리의 찬양과 열정적인 위십으로 다들 대면 수련회를 기다려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가사를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불렀더니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찬양이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 참 감사했습니다. 기도회 시간도 정말 뜨거웠습니다. 제가 힘들었던 순간에 하나님을 잊고 지친 제 마음에만 집중하였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언제나 날 지켜보고 계셨고 보살피신다는 것을 느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습니다.

둘째 날 집회에서 최영근 교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 중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건 명령이 아니라 축복이다" 라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워하는 마음보다 더 큰 사랑을 주시고,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더 이상의 원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 기도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흘러 넘쳐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한 공동체 기도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끼리 둥글게 모여 앉아 기도제목을 나눈 후 한 명씩 가운데에 앉아서 중보기도를 했고, 돌아다니면서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3~4명씩 모여 서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됨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신앙시간과 전도사님들의 특강, 공동체 프로그램까지 너무나도 알찬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이 모든 일정들을 준비해주신 임원단과 교역자분들, 사역팀들에게 감사하고 무엇보다 이번 수련회를 허락하시고 준비하면서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주일 집회에서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로 자족하고 예수로 채워지는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박영은 / 청년부 34기

마지막으로 열렸던 대면수련회는 2019년, 제가 청년부의 막내였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러 임원단으로서 준비한 2023년 겨울수련회는 여러 의미에서 특별했습니다. 예년보다 늦게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고 또 오랜만에 대면으로 진행되는 터라 모두가 정신없이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채능, 예수로 채워지는 능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준비하며 주님께 준비하는 손길들을 먼저 채워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동체로 저를, 함께하는 이들을 채워 주셨습니다. 늘 저에게 부족한 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임원들이 있었고, 마음이 힘들 때면 바로 알아채고 손잡아주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의 시기를 겪으며 함께하는 것이 어색해진 우리지만 저는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혼자보다 함께할 때 주님의 사랑이 배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수련회에 가기도 전에 채워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수련회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쏟아지는 변동사항으로 기쁘고 기대하는 마음보다 힘들고 지친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속상했던 저에게 이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전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앎이라"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수련회에 도착했는데, 첫째 날 집회 찬양 시간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주님을 향해 뻗고 있는 손들을 보는 순간 '이를 위해 주님이 여기로 우리를 부르셨구나'하는 생각을 들며, 한 달 반 동안의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았음을 제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가 진행될 때에도 함께하고자 노력했지만 현장에서 서로 눈 맞추며 이야기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고, 서로에게 손 올려 기도하며 온기를 나눌 때 공동체가 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4년 만에 진행되어 공동체를 채워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이 계획하신 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임원단 8명을 한 명 한 명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어 영광이었습니다. 강현서 / 청년부 30기



세움학당

마땅히 행할 길 - 주님의교회 4기 세움학당

‘세움학당[마땅할 당]’은 “마땅히 행할 길”(잠 22:6)을 전수하여 신앙의 주체로서의 가정, 훈련되고 준비된 교회학교, 다음세대를 세우는 교회 공동체를 지어가도록 성도들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2020년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1기를 시작한 세움학당은 2022년 3기까지 300명이 넘는 수료생을 배출할 정도로 주님의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해 온 과정입니다.

이번 제4기 세움학당은 3월 4일(토, 오후 6시~8시)에 개강하여 상반기 12주, 하반기 8주 총 20주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커리큘럼은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등록 및 수강 문의는 양육담당 윤경수 목사(010-9407-3709)에게 할 수 있습니다.

윤경수 목사

상반기(12주)

일정	교육내용	강사
3/4	‘기독교교육’ 바로 알기	장순애 교수(영남신학대)
3/11	‘다음세대 예배 오답노트’ 다시 쓰기	신형섭 교수(장로회신학대)
3/18	‘성경’ 함축적 이해	윤경수 목사(주님의교회)
3/25	‘교육과정’ 바로 알기	안정도 교수(장로회신학대)
4/1	신앙교사의 성경적 자기 관리	황바울 목사(주님의교회)
4/8	상담가로서의 신앙교사	이상억 교수(장로회신학대)
4/15	교수-학습과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원석 교수(장로회신학대)
4/22	‘교회교육행정’ 바로 알기	이상훈 목사(주님의교회)
4/29	신앙교사의 지도력	정구민 목사(주님의교회)
5/6	신앙교사와 영성	주선영 목사(칠곡교회)
5/13	메타버스와 교회교육	박민규 목사(주님의교회)
5/20	유유청청 교육이야기	각순 담당총괄

하반기(8주)

일정	교육내용	강사
9/9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	김도일 교수(장로회신학대)
9/16	자기를 찾아 떠나는 교사 영성 여행	박주영 목사(주님의교회)
9/23	사명과 섬김의 사람	박상진 교수(장로회신학대)
10/7	비전을 찾아 떠나는 영성 여행	한시영 목사(주님의교회)
10/14	공동체를 세우는 교사 영성 여행	배윤환 목사(주님의교회)
10/21	부서 방문	현장실습(유유청 중 택1)
10/28	부서 방문	현장실습(유유청 중 택1)
11/4	아름다운 여행으로의 초대	김화수 목사(주님의교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_ 잠언 22:6

양육클래스

주님의교회 봄학기 양육클래스 개설



2023.봄 양육클래스

수강기간 3.7(토)~5.14(주일)

화요일, 오후 7:30

- 시니어 선교학교
- 박민규 목사 (010-8790-9690)

수요일, 오전 10:00

- 성경 개관 및 통독 - 바울서신
- 이대혁 목사 (010-9006-9129)

토요일, 오전 10:30

- 영성훈련(2): 영성기도 훈련
- 최대형 장로 (010-3814-1353)

유튜브 온라인

- 마태복음 강해
- 윤경수 목사 (010-9407-3709)

금요일, 오전 10:30

- 모세오경 산책
- 이종성 목사 (010-3418-7386)

성경 속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 한시영 목사 (010-8935-5048)

사생결단? 사렘결단!

- 박민규 목사 (010-8790-9690)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가정

- 류경민 목사 (010-7195-4640)

금요일, 오후 8:00

-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 배윤환 목사 (010-3138-3262)

신청안내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동아요
내 길에 빛이요 (시 119:105)

신청기간 **2.19(주일)~3.5(주일)**

신청방법

- 각 강좌 담당 강사에게 문자로 신청
- 교회 홈페이지 양육과 훈련 → 양육 → ‘양육클래스’ 클릭 후 신청서 작성

문의 윤경수 목사(010-9407-3709)

2023년도 주님의교회 봄학기 양육클래스가 3월 8일(수)을 시작으로 총 9개 강좌가 개설됩니다. 이번 학기 양육클래스는 현장 강의 8개 강좌, 온라인 강의 1개 강좌로 구성되며, 수강신청은 담당 강사에게 문자로 신청하거나 주님의교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QR코드로 연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는 “찬양, 말씀, 기도”라는 아주 기본적인 신앙행위에 집중하는 시간으로 “불금”이라 불리며 놀고 즐기는 시간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금요일 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금요기도회를 통해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윤경수 목사





류경민 목사
성경에 나타난 선교적 가정



박민규 목사
시니어 선교학교/사생결단?사렘결단!



배윤환 목사
금요일에 시간 어때요?



이대혁 목사
성경 개관 및 통독_바울서신



이종성 목사
모세오경 산책



윤경수 목사
마태복음 강해



최대형 장로
영성훈련(2): 영성기도 훈련



한시영 목사
성경 속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

교사일기
어린이영어예배

협력하여 기쁨으로 섬기는 어린이영어예배

주일 어린이영어예배(Children's English Ministry)는 3년 전부터 섬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아이들의 얼굴과 이름도 익히지 못한 채로 현장 예배를 드리다가 줌(ZOOM)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줌(ZOOM)예배를 통해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화면 속에서 만나는 아이들의 밝은 얼굴과 목사님의 설교 말씀, 다양한 액티비티를 가능하게 만들었던 선생님들의 수고로 어려운 시기를 은혜롭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일 어린이영어예배는 주일학교 예배를 먼저 드린 어린이들이 주일 11시에 5층 제1집회실에서 영어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수요일 어린이영어예배는 수요일 저녁 7시 20분에 지하1층 사랑나무실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영어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며, 영어성경 본문 말씀을 함께 읽고, 목사님께서 영어로 설교를 하십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는 아이들과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액티비티 시간이 있습니다. 설교말씀과 연관된 만들기, 그리기 등등 평범한 재료들로 멋진 작품을 아이들과 함께 만들어 보는 시간이 참 즐겁습니다. 때로는 게임이나 연극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말씀 선포에 참여하기도 하는데, 적극적이면서 창의적으로 함께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참 예뻐요.

코로나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VBS(Vacational Bible School)는 ZOOM이라는 제한된 공간 속에서도, 주제 말씀을 다양한 활동과 게임을 통해 배우고, 간식과 작품으로 표현해 보기 등 알찬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스낵(snack) 코너를 진행하면서, 간식을 재료로 우리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것들을 예쁜 보물상자로 아이들과 다같이 만들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 나눌 수 있어서 새롭기도 하고 흥미로웠고, 로마 카타콤(지하교회)을 여행했을 때 사 온 기념품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구현해 보면서, 초대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올해의 VBS도 더욱 풍성하게 은혜롭게 준비되고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매주 다양하고 멋진 액티비티와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빛나는 아이디어와 함께 재료 준비, 만드는 과정샷 등 보물같은 자료들을 공유해 주신 지은 선생님, 수연 선생님의 수고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늘 활기와 밝은 에너지를 불어 넣어주시는 민경 선생님, 훌륭한 계획과 실행력으로 섬겨주시는 윤정 선생님, 맛있고 건강한 간식을 주시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진명 선생님, 재치와 진지함을 모두 갖추고 열심으로 봉사하시는 영은 선생님, 늘 섬김의 자리에서 빈틈없이 챙겨주시고 섬겨주시는 동이 선생님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과 어린이들을 하나로 묶어 주시는 정지인 목사님의 사랑과 수고, 또한 늘 사랑과 겸손으로 섬겨주셨던 이광실 권사님, 한길 선생님, 새로 오셨지만 오래 함께 하신 것 같은 김재울 부장집사님, 모두 예수님 믿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협력하여 기쁨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끗한 마음 발에 차곡차곡 심는 어린이들을 보면서, 어린 시절로 돌아가 주일학교를 같이 다니는 것 같았고,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액티비티를 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느꼈습니다. 교사로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모든 환경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수미 집사 / 어린이영어예배

남선교회
산상수훈

남선교회 '산상수훈' 인왕산(仁王山) 산행에서

한가로운 휴일인 2월 셋째 토요일 18일. 따스한 날씨 속에 혹 비가 내릴지 모른다는 일기예보 날씨에 인왕산 산행을 하였습니다. 배낭에 우산과 산행 난이도가 있다고 하여 스틱을 준비하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10시 30분에 만나서 기도를 "오늘도 은혜로운 산행 길이 되기를 바란다."기도를 마친 후에 산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가까운 산행길이지만 가파른 바윗길로 만만치 않았던 산행, 오랜만에 한가하게 겨울을 지냈던 무거운 몸과 함께한 산행길, 그리고 "헉헉"땀을 흘리면서 오르는 산행길은 모처럼 한양산성 성벽을 끼고 오르는 바윗길이었지만 내내 즐거움이 가득함으로 행복한 주말 '산상수훈' 산행이었습니다.

'산상수훈'에 참여하고 함께 산을 오르며 준비해온 간식과 커피를 나누며 행복하고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인왕산 정상석에서 사진도 찍으며 함께 어린시절로 돌아간 듯 인왕산 호랑이 흉내를 내는 사진 놀이도 하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을 느끼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산 후 식당을 가득 채우고 먹은 만두국과 함께한 인왕산 산행의 즐거움으로 에너지 충전하게 된 '산상수훈'이었기에 감사했던 하루였습니다. 함께해주신 남선교회 '산상수훈' 덕분에 건강함과 행복함이 넘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습니다.~**~"따스한 봄 3월 셋째 토요일에 뵈겠습니다. 2023년 각 남선교회 회장으로 1남선교회 : 이명기 안수집사. 2남선교회 : 이종만 안수집사. 3남선교회 : 최우철 안수집사. 4남선교회 : 이성호 안수집사. 5남선교회 : 이승균 안수집사. 6남선교회 : 윤승진 안수집사가 수고를 해주시겠습니다.

신형섭 장로 / 2남선교회



교회사용설명서②

교회의 절기 이해하기

사용하기 전에 알아야 할 정보

절기는 동아시아에서 태양년을 24로 나누어 계절을 구분하도록 한 특별한 날을 의미합니다.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과 같은 날이 전통적인 절기입니다.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교회의 절기는 교회력에 의해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는 기념일들을 말합니다. 교회력은 매 주일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에 초점을 두기 위하여 제정한 달력을 의미하며, 성탄절과 부활절을 중심으로, 이 두 절기에 대한 준비와 기대, 참회와 절제, 영접과 축하의 날로 구성됩니다. 교회력은 기독교의 교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교회는 대림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사용 방법

주님의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의 헌법에는 다음과 같은 날들을 절기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절기

1월	6일	주현절
	8일	주님의 수세 주일
2월	19일	산상 변모 주일
	22일	재의 수요일
	26일	사순절 첫 주일
4월	2일	종려주일(고난주일)
	3~8일	고난주간
	7일	성금요일
	9일	부활주일
5월	18일	주님 승천일
	28일	오순절 성령강림일
6월	4일	삼위일체주일
11월	26일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12월	3일	대림절 첫 주일
	25일	성탄절

대림절 :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고취시키는 절기입니다.

성탄절 : 평화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와 찬양으로 새로운 기쁨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절기입니다.

주현절 :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보여 주신 은총을 인식하면서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 : 그리스도인들이 참회와 절제와 깊은 명상으로 수난의 길을 택하신 주님을 새롭게 영접할 준비를 하는 절기입니다.

고난주간 : 이 주간은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선포하고, 그 모진 고초를 생각하면서 경건한 삶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주님의 수난을 명상하는 주간입니다.

부활절 : 죽음을 이기신 우리 주님의 권능과 부활의 승리가 우리에게 함께 있게 됨을 감사하고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성령강림절 : 초대교회의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하심에 의하여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동력 있는 삶을 강조하는 절기입니다.

그 외에 주님의 생애를 기리는 중요한 날들로서 주님이 세례 받으신 주일, 주님의 변모 주일, 주님의 승천주일, 삼위일체주일, 왕 되신 그리스도 주일 등이 주요 절기입니다.

관리법과 주의사항

교단에 따라, 일반적인 기념일을 교회력에 추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년주일,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맥추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 추수감사주일, 장애인 주일과 같은 날들입니다. 그러나 이런 날들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력의 절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탄의 기적과 부활의 증거를 통해 쉬지 않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셨습니다. 절기는 예수님의 은혜와 신앙을 일상에서 기억하며 실천하는 날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함글함글

상례위원회
2023 수련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을까?

상례위원회 2023년 수련회가 2월 11일(토) 4층 대회의실에서 박주영 목사의 인도와 설교로 진행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장례식이 많아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상례부 부원들이 많이 참석하여 귀한 시간을 가졌다.

죽음과 삶과 인생, 상례위원회는 교회에 상례가 생겼을 때, 천국 환송 예배나 입관 예배 등 예배에 참여하여 유가족들을 위로하는 부서이다.

예배를 마친 후에 상례팀 부원은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맞을까?' 하는 제목으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발표 하는 시간도 가졌다.

상례팀과 함께 하는 '하임찬양대'는 이른 시간인 발인 예배에 참석하여 고인과 헤어지는 천국 환송 예배에서 유가족들을 위로하며 찬양을 드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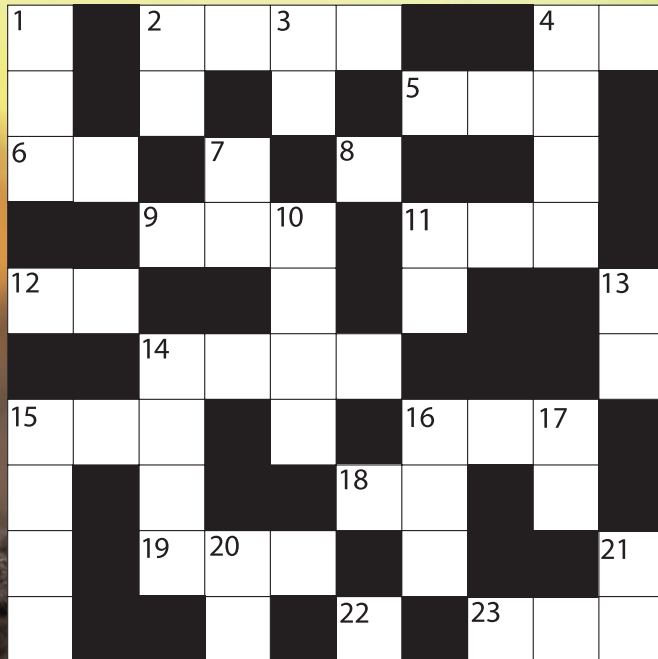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로마서 11:36)로 기도를 마치고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상례팀과 하임 찬양대로 봉사를 할 수 있게 시간과 건강과 책임감을 주심에 감사를 드렸다.

함글함글



가족과 함께 풀어보는 성경 십자말 풀이 열왕기상편

이번 호에는 <열왕기상>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열왕기상>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준 후, 솔로몬 왕 때에 전성기를 맞았던 이스라엘과 이후 분열하는 시기에 대한 역사서입니다. 성경을 꼼꼼히 읽으면 찾으실 수 있도록 힌트에 해당 성경 구절을 안내했습니다. 정답은 다음 호에 발표합니다.



463호 사무엘하편 정답

헤	브	론		라	흐	미		기	
	엘			이				아	브
	세			이	스	보	셋		온
게	바			스			째		
셀				르	바	임		요	나
	발	디	엘				모	압	장
						아	람		
스	라	야		히				길	보
루				진	노			르	말
야	베	스		암	논			앗	렉

가로 힌트

2. 서남 아시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 솔로몬 왕 때 이곳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세금을 바쳤다. (왕상 10:14~15)
4. 이스라엘의 7대 왕. 우상숭배와 탐욕스런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준 악한 왕이었으며, 우상숭배의 결과로 가뭄과 기근이 왔다. (왕상 16:32~33)
5. 갈멜산 남쪽에 위치했던 성읍. 솔로몬 때에 바야나가 이곳을 다스렸으며 솔로몬은 이곳을 요새로 만들었다. (왕상 9:15)
6. 애굽의 왕. 솔로몬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데려다가 왕비로 삼았다. (왕상 3:1)
8. 왕국의 최고 통치자. 다윗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이것이었다. (왕상 1:1~11)
9. 아람의 왕. 선지자 엘리야에 의해 기름 부음을 받고 아람 왕이 되도록 예언되었다. (왕상 19:15)
11. 다윗의 자매이며 나하스의 딸. 다윗의 군대장관이었던 요압, 아버지, 아사헬의 어머니이다. (왕상 1:7)
12. 이스라엘 사람. 북이스라엘 제1대 왕 여로보암의 아버지이다. (왕상 11:26)
14. 사울과 다윗 때의 대제사장. 다윗 말년에 아도니야를 지지하여,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아나돗으로 추방되었다. (왕상 2:26)
15. 다윗 정권에 반기를 든 압살롬이 요압 대신 세운 군대 장관으로 이드라의 아들. (왕상 2:5)
16.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던 베냐민 지파의 성읍. 솔로몬은 이곳에 와서 희생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왕상 9:1~9)
18. 예루살렘 서남쪽, 가사로 가는 길에 있는 지역. 솔로몬에 의해 금족령이 내려진 시므이가 도망간 종을 찾으러 이곳으로 갔다가 명령을 위반한 벌로 죽임을 당했다. (왕상 2:39~46)
19. 이스라엘의 대신. 솔로몬 내각에서 궁중 대신으로 일했다. (왕상 4:6)
22. 가장 귀하다고 인정받는 금속. 솔로몬 시대 성전 기구 중 하나로 진설병을 놓는 상은 백향목에 이것을 씌웠다. (왕상 7:48)
23. 지금의 예루살렘 북쪽에 있던 지역. 유대의 아사 왕이 요새를 건축하여 이스라엘 군의 재침범을 막았다. (왕상 15:22)

세로 힌트

1. 솔로몬의 어머니. 아도니야가 왕위찬탈을 꾀할 때 다윗에게 솔로몬을 왕위 계승자로 삼을 것이라는 약속을 회상시켜 솔로몬을 왕위에 앉게 했다. (왕상 1:11)
2. 솔로몬 왕정 시대의 지파. 이 지파인 후세의 아들 바야나가 지방 장관이 되어 일 년에 한 차례 왕궁의 식량을 조달했다. (왕상 4:7,16).
3. 손으로 현을 튕겨서 연주하는 현악기. 솔로몬 시대에는 백단목으로 이것을 만들었다. (왕상 10:12)
4.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넷째 아들. 자신에게 왕위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왕위 즉위식을 하려고 했지만 밋세바와 나단이 다윗에게 솔로몬의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여 실패했다. (왕상 1:11)
7. 용맹스러운 사람. 특히 다윗 시대에는 다윗을 도와주었던 30명의 엘리트 집단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했다. (왕상 1:8)
10.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의 노련한 용사. 하닷에셀 왕을 쳐부수고 수리아의 왕이 된 르손의 아버지이다. (왕상 11:23).
11. 무덤, 땅 밑 세계. 죽음의 상태를 뜻하는 말이다. (왕상 2:6)
13. 길르앗에 있는 갓 지파의 성읍. 아합 왕이 아람과 싸우다 전사한 곳이다. (왕상 22:29)
14. 솔로몬 때의 사람. 사독의 아들이며 제사장이다. (왕상 4:2)
15. 압다의 아들. 다윗부터 솔로몬, 르호보암 때까지 노동 감독관으로 일했다. 북이스라엘 10지파가 반역했을 때 르호보암에 의해 10지파에게 파견되었으나 백성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다. (왕상 12:18)
16. 가나안 땅 중에서 스불론 지파에게 속했던 성읍. 아사과 히스기야가 우상을 태워버린 곳이다. (왕상 15:13)
17. 이런저런 여러 가지의.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OO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왕상 9:4)
20. 두로 땅의 왕. 다윗 및 솔로몬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일꾼과 백향목, 잣나무, 금을 보내어 성전 건축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왕상 5:1)
21. 베냐민 지파의 영토. 요나단이 이곳에서 블레셋을 격파시켰으며, 아사 왕이 요새로 만들었다. (왕상 15:22)

사역자 모집
봉사부

봉사부를 소개하며 봉사부원을 모집합니다.

우리 봉사부의 주된 봉사는 주일 로비에서 교우들이 커피나 차를 드실 수 있게 봉사하는 따뜻한 부서입니다.

코로나 시즌이 끝나가며 로비에서 차 봉사가 시작되던 몇 달 전을 떠올려 봅니다. 예배를 마치거나 봉사를 마친 분들이 로비에서 모여 담소를 나누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가, 차 봉사가 시작되자 로비의 온기가 따뜻한 차의 온도만큼이나 따뜻해지며 교우들께서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는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봉사자들은 봉사를 위해 실만한 물가 안에서 봉사하고 있는데, 실만한 물가에서 물끄러미 로비를 바라보면 밝게 웃으시며 맛있게 차를 드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보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 그저 기분이 좋습니다. 마치 식당 주인이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손님을 바라보는 느낌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약간의 공간적 변화가 생긴 실만한 물가 내에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우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작은 차 한 잔이지만 교우들의 교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부서가 봉사자가 부족한 것처럼 저희 부서도 봉사자가 부족하고 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부서 부원이 되시면 즐거운 봉사를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봉사로는 연초 특별새벽기도회 빵과 우유를 나누는 봉사, 부활주일과 추수 감사 주일 떡 나눔 봉사가 있습니다. 떡 나눔 봉사는 여러 봉사자가 필요한 봉사이고, 다소 힘을 써야 할 상황도 있지만, 따뜻한 떡을 받으시며 밝게 미소 짓는 교우들을 마주하는 그 기쁨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부서는 현재는 담당 목사 류경민 목사, 담당 장로 신형섭 장로, 부장 오세원 안수집사, 지도권사 강정임 권사와 5명의 부원이 7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맡은 시간에 함께 봉사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원하시는 분 누구나 가능하시며 봉사시간별 1~2명의 부원이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특히 남자 봉사자 환영합니다. 봉사 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오세원 안수집사 010-2102-6767)

오세원 안수집사 / 봉사부장

2023년 봉사부 봉사시간

팀명	예배참석 후 봉사시	봉사시간	봉사 후 예배참석 시	세팅
1부	X	7:30 ~ 8:45	봉사 후 2부(9시)예배 참석	현장관리
2부	1부(7시)예배 드리고 봉사	8:20 ~ 10:45	봉사 후 3부(11시)예배 참석	현장관리
3부	2부(9시)예배 드리고 봉사	10:20 ~ 12:45	봉사 후 4부(1시)예배 참석	현장관리
4부	3부(11시)예배 드리고 봉사	12:20 ~ 13:30	X	뒷정리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활을 기다리는 40일의 여정

Jesus gave us everything

2023. 2. 22(수)~4. 8(토)

말씀묵상

사순절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2.26 사순절 첫번째 주일	2.27	2.28	2.29	2.23	2.24	2.25
3.5 사순절 두번째 주일	3.6	3.7	3.8	3.9	3.10	3.11
3.12 사순절 세번째 주일	3.13	3.14	3.15	3.16	3.17	3.18
3.19 사순절 네번째 주일	3.20	3.21	3.22	3.23	3.24	3.25
3.26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	3.27	3.28	3.29	3.30	3.31	4.1
4.2 부활주일	4.3	4.4	4.5	4.6	4.7	4.8

교회일정

- 3/7(화) 양육클래스 개강
- 3/8(수) 겨자씨 인도자 교육 1학기 개강
- 3/11(토) 자녀축복새벽기도회
- 3/12(주일) 정기당회

알립니다

1. 사순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2. 시니어선교학교

교육일시 : 3/14~5/30(매주 화) 오후 7:30~9:30
신청장소 : 1층 로비
문의 : 박민규 목사(010.8790.9690)

3. 2023년 주님의교회 남녀선교회 등록 안내

일정 : 3/5(주일)
장소 : 1층 로비
문의 : 각 남녀선교회장

4. 주님의교회 67기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생 모집

교육일시 : 3/16~6/1(매주 목, 온라인)
교육비 : 등록금인 5만원
문의 : 김희수 권사(010.5302.3175)

5. 2023 상반기 주님의교회 대내외 장학금 신청안내

대상 : 대학생(고등학교, 유학생, 대학원생 제외 / 1가족 1명)
일정 : 3/11(토)까지(월요일, 공휴일 제외)
장소 : 사무실(1층)
문의 : 박기운 안수집사(010.8639.1071)

삶의 힘이되는 목소리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

함줄함울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김낙균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www.pcltv.org

편집 : 홍보출판부

〈함줄함울〉은 주님의교회가 발행하는 문서선교지입니다. '함줄함울'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로마서 12:15) 말씀에 바탕을 두고,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뜻을 담은 이름입니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의 좋은 글, 소식, 간증, 기사제보를 기대합니다. 이메일 : pclhamletter@naver.com



주님의교회